범어사, 개산 1344주년…의상대사 기려

기증전시 및 자선음악회 등 문화제
불교문화 향유·자비나눔의 장으로
어린이합창단 창단기념 정기 공연
이태원 참사 추모음악회로 변경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금정총림 범어사가 10월 28일 경내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제1344주년 금정총림 범어사 개산대재 법요식'을 봉행했다. 방장 지유 스님 법문하는 모습.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보운)가 10월 28일 경내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제1344주년 금정총림 범어사 개산대재 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번 법요식에서 범어사는 개산조인 의상대사에게 차와 향을 올리고 개산 1344주년을 기념했으며 이어 개산대재 문화제를 개최해 기증전시 및 자선 신도 음악회, 민화전시 등을 진행했다. 이번 개산대재문화제는 불자 및 시민들과 불교전통문화를 함께 향유하고 소외이웃을 위한 보시 나눔의 장으로 회향해 의미를 더했다.

법요식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 주지 보운 스님을 비롯해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 송숙희 부산시 여성특별보좌관, 안성민 부산시의회의장, 백종헌 국회의원, 이영경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총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법요식은 △육법공양 △명종5타 △삼귀의 △반야심경 △헌향 및 헌다 △헌화 및 내빈소개 △의상대사 행장소개 △봉행사 △인사말 △축사 △법어 △축가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금정총림 방장 지유 스님은 법어를 통해 "의상대사는 우리나라에 화엄십찰을 세우고 〈화엄경〉을 설하셨다. 범어사는 화엄의 가르침을 잇고 있는 사찰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면면히 이어오고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은 "범어사는 신라시대 의상대사께서 화엄의 가르침을 통해 중생의 불성을 일깨우고자 한 도량이자 동시대에 원효대사를 비롯한 여러 큰스님들이 선불장으로 삼으셨던 곳"이라며 "오늘 개산대재는 의상대사의 창건이념을 새기고 범어사가 이어온 유구한 역사를 다시금 후대에 온전히 전승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이다. 범어사 사부대중 모두는 다음 시대를 이어갈 정신을 계승하고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의상대사는 625년 진골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644년 황복사에서 출가해 당나라 양주에서 유학했다. 중국 화엄종 2대 조사인 지엄 스님 문하에서 화엄학을 8년 동안 수학했으며, 7언 30구 210자로 화엄사상의 핵심을 도인으로 나타낸 화엄일승법계도를 제작했다. 이후 678년 왕명에 따라 범어사를 창건했으며, 화엄대교를 전하기 위해 화엄십찰을 창건했다.

한편, 범어사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10월 31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대강당에서 '범어사 어린이합창단 정기음악회-이태원 참사 추모음악회'를 개최했다.

범어사는 어린이합창단 창단을 기념하는 정기 공연을 준비했으나 이태원 참사 소식을 듣고 추모음악회로 변경해 애도의 뜻을 전달했다. 음악회에는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백종헌 국회의원, 신기열 범어사 어린이합창단 후원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추모음악회는 추모묵념과 추모사 등 애도의 뜻을 전하는 식순으로 이어졌으며, 범어사 어린이합창단은 추모곡 '우리의 사랑의 필요한 거죠' '위로' 등 두 곡을 부르며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 음악회와 함께 진행한 조계종 중앙신도회 행복바라미 문화축전은 축소됐으며 나눔을 전하는 기부의식만 진행됐다.

삼광사, 신도회 창립 53주년 기념대법회

공로패 · 표창패, 자비의 쌀 전달
이태원 희생자 극락왕생 발원도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영제)가 경내 지관전에서 '삼광사 신도회 창립 53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

삼광사는 법회에 앞서 묵념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아울러 삼광사는 기획했던 음악회를 전면 취소하고 애도의 뜻을 밝혔다.

기념법회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과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 주지 영제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보운 스님, 상임부회장 진광 정사와 박형준 부산시장,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이헌승 국회의원, 서병수 국회의원,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등 내빈들이 동참했다.

법회는 △삼귀의 △찬불가 △반야심경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 △국운융창기원 △연혁보고 △표창패 · 공로패 수여 △자비의 쌀 전달식 △봉행사 △법어 △격려사 △축사 △관음정진 △발원문 △사홍서원 등으로 진행됐다.

공로패와 표창패는 배두석 외 19명에게 전달됐으며, 자비의 쌀 1만kg을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에게 전달하고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회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법어를 통해 "깊은 신심과 정성을 담아 도반들과 함께한 한걸음 한걸음이 별이 되어 도량을 빛낸다. 세월은 흘러도 초발심의 청정함이 푸른 소나무와 같이 한결 같으니 불심의 향기 백양산 자락에 가득하다"며 "관음염송 삼매 속에 미혹의 사바를 건너가는 반야용선에 높이 올라 성불의 길을 힘차게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주지 영제 스님은 "천태종이 처음 부산에 신도회를 창립할 당시의 상황은 정말 어려웠다. 신도님들의 집과 예식장, 교육회관에서 법회를 보았으나 원력을 세우고 정진해 백양산 자락에 지금의 대가람을 나투게 되었다"며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라는 3대 지표를 실천하는 신도들의 기도소리가 산을 넘어 물을 건너 지구 곳곳에 닿아 세상의 모든 살아 있는 생명이 존중받는 세계인류평화로 연화정토가 되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불련 부산 · 해외교환학생 불교문화탐방

10월 30일, 경주 남산 일대 탐방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지부장 장남주)가 10월 30일 경주 남산 일대에서 '해외교환학생과 함께 하는 불교문화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불교문화탐방은 체코, 러시아, 멕시코 등에서 온 대학생들에게 불교전통문화를 소개하고, 부산에 소재한 대학교 불교 동아리 학생들이 동참해 화합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진흥사 주지 정법 스님, 장상목 부산교수불자회 회장, 최은희 前 대불련 총동문회 부산지부장과 전정순 대불련 총동문회 지부장을 비롯해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동명대학교, 인제대학교, 대동대학교, 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등 7개 대학 학생과 체코, 러시아, 멕시코에서 온 교환학생 등 40여 명이 동참했다.

대불련 부산지부는 경주 남산 남산리에 위치한 동서 삼층석탑과 미륵골 보리사 석조여래좌상, 탑곡마애불상군 등 문화재를 탐방했으며, 문화재 설명, 탑돌이, 참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진흥사 주지 정법 스님은 "불교문화재는 오랜 전통과 문화의 진수이자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담겨 있는 성보"라며 "오늘 탐방에 해외에서 온 학생들과 많은 대학생들이 동참해 기쁘다. 앞으로도 문화를 통한 불교 포교 행사가 더욱 많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상목 부산교수불자회 회장은 "코로나와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4년 만에 개최한 행사이다. 앞으로 있을 절수행과 다채로운 불교문화행사에도 높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위해 부산 진흥사와 대불련 총동문회 부산지부, 부산교수불자회가 관광버스, 식사 및 간식, 문화상품권 등을 후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교교육聯, 교학연구발표회 개최

현대교육 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 등



불교교육연합회(회장 윤성이)가 10월 28일 금정중학교 도서관에서 제51회 교학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코로나로 인해 3년만에 열린 이번 교학연구발표회에는 금정학원 이사장 화랑 스님, 신성현 불교교육연합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불교종립학교 12개 법인 28개교의 교장 및 교법사, 포교원, 재단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금정중학교 학생들은 교학연구발표회에서는 3.1 독립운동을 주제로 연극을 선보여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을 주도한 금정중학교의 역사를 설명해 박수를 받았다.

이석언 금정중학교 교법사는 교학연구발표에서 '전통사찰을 활용한 청소년 포교방법' - 금정총림 범어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석언 교법사는 청소년포교사례로 △수계법회 △연등축제와 호기놀이 △3.1만세운동재현 △다도교육 △108배와 오체투지 △교내 점등식 및 금정 봉축제 △문화재 애호활동 △범어수효단 활동을 설명했다. 이어 "인성, 역사, 문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융합교육이 현대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금정학원 이사장 화랑 스님은 "앞으로도 훌륭한 교육자로서 전법활동에 힘써 달라"며 "전법포교가 너무나 어렵고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한 시기이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더욱 정진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교육연합회는 금정학원 이사장 화랑 스님에게 감사의 의미로 꽃다발을 전했으며, 금정중학교 박명규 교장과 이석언 교법사에게는 청소년 교화와 불교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치하하며 공로패와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청미단 운암장학회 장학금 전달

장학기금 총 1000만 원 전달



청미단 운암장학회(이사장 운암)가 11월 1일 해동고등학교 법당에서 '청미단 운암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청미단 운암장학회는 전달식에서 김도현 학생 외 9명에게 장학금 각 50만 원씩, 총 500만 원과 해동고, 해동중, 금정중에서 활동하는 파라미타 분회에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해동고 우수교사로 선정된 안정수 교법사, 문제원 교사에게 연구지원비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전달해 총 1000만 원의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청미단 운암장학회 이사 효산 스님, 이수길 해동고 교장, 안정수 해동고 교법사, 천용귀 해동중 교법사, 이석언 금정중 교법사가 참석했다.

효산 스님은 "과거 힘들었던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는 것이 장학금인 것 같다. 꿈과 희망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매진해 이루고자하는 원력을 꼭 성취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수길 해동고 교장은 "그 어떤 나눔보다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응원하고 지지하는 운암장학회에 깊이 감사한다"며 "이런 나눔 실천이 학교와 학생에게 크나큰 격려가 된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운암장학회는 지난 2019년 불교계 인재불사를 발원하며 창립해 매년 1000만 원을 해동고 학생 장학금과 우수동아리 활동 등에 지원하고 인재불사에 앞장서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호국불교무림종, 무술대학 창립



종합무술활동을 통해서 불교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사단법인 호국불교무림종(종정 김인극, 이하 무림종)이 10월 30일 약호사(주지 무불법승)에서 무술대학 창립기념식을 봉행했다.

무림종은 창립기념식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통해 교육원장에 용산 스님, 부산종무원장은 혜명 스님을 임명했으며, 홍보대사에 이금화, 무술대학 부회장에 이서연, 문화예술원장에 배현숙, 홍보대사에 조상영, 고문변호사에 조영웅을 임명했다.

무림종은 종합무술, 동양심리철학, 체형교정, 범패, 불교예술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교육기간은 6개월이다. 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수료하면 포교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2015년 창종한 무림종은 전국 470여 개 태권도 등 무술단체와 연합하여 각종 무술행사를 개최 및 후원하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광명사, '미륵대범종각 상량식' 봉행

범종각, 신흥수 대목장 맡아



부산 천태종 광명사(주지 춘광)가 10월 30일 경내 일원에서 '미륵대범종각 상량대법회'를 봉행했다.

광명사는 생명존중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며 미륵대범종각 상량법회를 봉행했으며 아울러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도를 전하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상량식에는 주지 춘광 스님,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 정법사 주지 보광 스님, 금정구불교연합회 회장 고담 스님, 금정구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동암 스님, 신응수 대목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광명사 미륵대범종은 높이 3.3m, 직경 1.9m, 무게 3300관(13t)이며, 미륵대범종각은 지상 1층 · 연면적 18.5평 규모로 현재 조성 중이다. 미륵대범종각의 불사는 신응수 대목장이 맡았으며, 정면 3칸, 측면 3칸, 배흘림기둥에 주심포집 양식의 팔작지붕으로 건축된다.

주지 춘광 스님은 "금일 들보를 올리는 광명사 종각은 시방으로 맑고 우렁찬 법음을 전파해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지옥 끝에도 이르고 상월원각대조사의 장엄한 가르침이 만 중생의 해탈지견을 밝혀줄 것"이라며 "이 인연으로 대한민국 국운융창, 부산시민의 안녕, 생명존중과 세계인류평화를 기원하며, 광명사 종각 건립 불사에 동참한 인연공덕으로 모든 불자의 심신 강건과 세세생생 성불의 복덕 성취를 발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옥천암, 산신재 및 행복쌀 나눔잔치

10월 29일, 백미 1080kg 전달



자비나눔실천도량 부산 황련산 옥천암(주지 대각)이 10월 29일 옥천암 경내에서 '제9회 산신재 및 행복쌀 나눔잔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일문 스님(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관음회 회장), 지오 스님(기원정사 주지), 천웅스님(동국불교대학교 동림동문회 동문회장), 박수영 남구갑 국회의원, 박재호 남구을 국회의원, 오은택 남구청장 및 남구 구의회의원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산신재 의식으로 시작해 2부 기념식에서 자비의 쌀 전달 및 주지스님 인사말, 격려사, 축사 등으로 이어졌다.

옥천암은 행사에서 자비의 쌀 10kg 108포대 총 1080kg을 오은택 남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주지 대각 스님은 "몇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파탄 나고 모두가 힘들 때에도 우리 옥천암 신도들은 나눔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며 "그동안 함께해주신 모든 신도님들의 보살행에 깊은 감사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옥천암 산신재는 1985년 7월 5일 문현동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영가들을 위한 위령재이다. 옥천암은 2014년부터 산신재를 봉행하고 있으며, 매년 자비의 쌀을 지역민에게 전달해 건강과 화합을 기원하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울산 신흥사, 임란의병 추모 산사음악회



호국도량 울산 신흥사(주지 종현)가 10월 29일 경내에서 '임란의병 추모 산사음악회'를 봉행했다.

음악회에는 신흥사 주지 종현 스님, 이상헌 국회의원, 박천동 북구청장, 김준현 향토문화연구회 회장,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공연인 아리랑고고장구 및 색소폰 연주로 시작됐으며, 개회선언, 내빈소개, 인사말, 축사, 격려사, 시낭송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바라춤, 판소리, 전자첼로 연주, 전통춤 등의 공연이 펼쳐졌다.

신흥사는 635년 명랑조사가 창건했으며 임진왜란 때 승군이 의병과 연합해 왜적을 물리친 호국사찰이다. 승병을 이끈 지운대사는 의병과 관군에게 절 양식 300여 석을 보급했고, 신흥사를 훈련 장소로 제공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